

신창재 회장, UN 포럼서 '인본주의 경영론' 연설

교보생명 회장, 韓 기업인 최초 기조연설

“사람은 공기 없이 살 수 없지만 공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과 같이 기업에게 이익은 생존을 위한 연료이지만 그 자체가 경영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ICSB(세계중소기업협회) 주최 포럼에서 한국 기업인으로선 최초로 기조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ICSB는 지난 1955년 설립된 국제단체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정책과 기업가정신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 20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연설은 ICSB가 한국의 대기업인 교보생명의 이해관계자 경영 사례와 경영철학을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신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ICSB(세계중소기업협회) 포럼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지속가능한 인본주의적 이해관계자 경영'을 주제로 한국 기업인 최초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회장을 연사로 초청하면서 마련됐다.

신 회장은 '인본주의 경영론'을 강조하며 지난 외환위기 여파로 파산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

며 직원들과 함께 고군분투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특히 사원들이 공감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의사소통에 힘쓴 점을 경영혁신의 핵심요소로 꼽았다.

신 회장은 “기업의 비전과 전략은 사원들이 공감해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며 “비전과 전략을 널리 공유하면 사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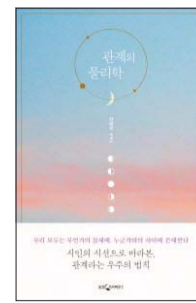
그는 강연 말미에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인본주의적 가치를 창출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기업경영은 모든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강한 주인의식을 갖고(Of the people),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며(By the people),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경영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For the people)”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관계의 물리학

웅진지식하우스/림태주 지음



‘이 미친 그리움’과 ‘그토록 붉은 사랑’을 통해 깊은 공감과 잔잔한 울림을 불러일으킨, 작가 림태주가 세 번째 산문집으로 돌아왔다. 신작 ‘관계의 물리학’은 그만의 시적인 감수성과 아름다운 은유로 나와 당신, 우주의 사이에 대해 사유한 그의 첫 관계학개론이다.

저자는 서로의 마음에 난 길이 관계라 말한다. 그 길은 서로 간의 오해로 막혀버릴 수 있기에 건너기 어렵다. 스스로에 대한 오해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우리는 닿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길 위에서, 내 생각과 당신의 이해 속에 비친 서로를 들여다 보며 진정한 자아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 나다운 삶을 꿈꾸기 전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이유다.

‘관계의 물리학’ 1부 ‘관계의 날씨’에서는 세상에 생겨난 모든 사이들을 우주에 비유한다. 2부 ‘관계의 언어’에서는 사람을 읽고 또 읽는 말과 태도의 알맞음을 전한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실패했던 시인의 고백은 간간히 웃음을 자아낸다. 3부 ‘행복의 질량’에서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할 마음가짐,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대해 사유한다. 4부 ‘마음의 오지’는 나 자신과의 관계, 스스로에 대한 오해와 마주하며 외로움의 본질에 대해 탐구한다.

264쪽, 1만38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삼표그룹 연천군 어린이 환경미술 캠프 개최

삼표그룹은 경기 연천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제2회 삼표와 그린(Green) 지구’ 환경 미술 캠프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 미술 캠프에는 연천군 지역 아동 및 가족 80여 명이 참석했다.

어린이 환경 미술 캠프는 지역 아동들에게 자원을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학생들은 기존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식물원의 식물들을 직접 보면서 식물의 서식 환경과 보존 역할 등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나뭇가지나 잎의 자연물을 활용해 ‘드립 캐처’를 제작하고 ‘환경퀴즈’, ‘탄소발자국계산하기’ 등 환경 체험 놀이도 진행했다.

삼표는 ‘어린이 환경 미술 캠프’ 외에도 1993년 설립한 ‘정인옥학술장학재단’ 등을 통해 소외지역의 우수장학생과 학교에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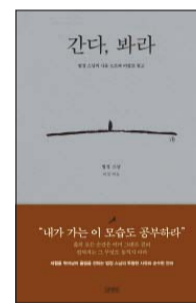
경기 포천 평강식물원에서 열린 ‘삼표 환경 미술 캠프’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을 지원하는 등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간다, 바라

김영사/법정스님 지음



280쪽, 1만4500원

/신정원 기자

법정스님이 생애의 마지막 시기들을 보낸 강원도 산골 시절, 그때까지 지니고 있었던 노트와 메모, 편지, 그림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스님이 아껴둔 미발표 시와 에세이, 퇴고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육필 원고, 다양한 책에서 가장 귀한 구절만을 뽑아서 정리한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스님의 치열한 공부와 빛나는 감성이 덧붙여지면서 어느 장을 읽어도 여운이 깊은 색다른 잠언집이 탄생했다.

오늘의 운세

5월 14일 (음 3월 29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60년생 호운에 마음이 들며 일을 그르칠 수 있다. 72년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점검을 철저히 하라. 84년생 눈앞에 이득보다 먼 장래를 생각하라.
- 소** 49년생 원활한 일의 진행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 61년생 걸치레 보다는 내면을 충실히 해야 손실이 적다. 73년생 공적인 일은 원칙을 고수 해야 한다. 85년생 친지의 도움으로 사업이 번창 한다.
- 호랑이** 50년생 시기하는 세력으로부터 난관에 봉착 한다. 62년생 연장자의 조언은 인생의 밑거름이 된다. 74년생 부부 화합은 마음의 대화로 하라. 86년생 재운이 있어 돈이 되는 정보나 환경이 유리하게 된다.
- 토끼** 51년생 아랫사람을 꾸중하기보다는 실수가 없도록 충고 하라. 63년생 투자기에 신경 쓰면 대어를 낚을 수 있다. 75년생 남쪽은 삼가고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 87년생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심을 보여라.
- 말** 52년생 가정에 불화가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64년생 친척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라. 76년생 ㄴ, ㄹ, ㅍ 세씨는 잠자리 머리 방향을 남쪽으로. 88년생 억압으로는 안 되니 순리대로 대처하라.
- 뱀** 53년생 성취욕이 강해 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다. 65년생 낙심 하지 말고 의연한 자세로 참고 견뎌라. 77년생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 좋은 결과가 꼭 올 것이다. 89년생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 말** 54년생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아군은 없다. 66년생 책임지지 못 할 행동과 언사는 삼가라. 78년생 말로만 해준다는 사람은 특이하다. 90년생 이정표 없는 거리에서 방향하는 격으로 어려움이 있다.
- 양** 55년생 일의 욕심을 부리지만 성과는 적다. 67년생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기도 하라. 79년생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충실함을 보여라. 91년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꼭 참고 꾸준히 분발 하라.
- 원숭이** 56년생 티끌 모아 쌓은 것을 단단계에 털어 넣는 격이다. 68년생 다양한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0년생 부족한 부분은 빨리 보충여 기회를 잡아라. 92년생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인연이 닿는다.
- 닭** 57년생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다. 69년생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가정에서 찾아라. 81년생 대인관계가 성공의 비결. 93년생 명수에 숨어 있는 모이를 찾아 내는 닭의 형상이다.
- 개** 58년생 칭찬 듣는 날도 오고 행운도 잡을 수 있다. 70년생 오랜만에 가정에 편안함이 있다. 82년생 마음에 없는 일을 맡게 된다. 94년생 첫 만남은 좋았지만 날이 갈수록 갈등이 심해진다.
- 돼지** 59년생 기회가 도래 하니 힘써 움직이기만 하면 수확이 크다. 71년생 신용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자신 있게 추진하라. 83년생 부부간 더욱 신경을 써서 존재감을 느끼도록 해야. 95년생 노력보다 특이 적으니 심신이 피로하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2		7			4
	1					8		
9		4					2	
4		6		8			3	
	7	5			9	4		
			5					
	2	8		1		9	5	
1			4	9	3			6

						1		
			7	8		9		
	4			2				1
2		6	4				7	
3		4				8		5
	5				3	4		6
5					3			6
1				2		4	9	
			6					

스도쿠 정답								
9	8	2	6	5	7	1	4	3
5	6	9	1	8	2	7	3	4
1	7	4	3	5	8	6	9	2
8	9	7	6	2	5	1	3	4
6	5	1	8	9	2	7	4	3
4	2	5	1	7	9	6	8	3
5	4	8	7	6	1	9	2	3
7	1	9	4	8	2	5	6	3
2	6	3	5	9	1	7	8	4
3	5	1	4	6	9	8	2	7
7	8	6	7	5	2	4	1	9
8	7	9	1	4	5	3	2	6

문제 제공= 보누스